



한민족의 문화 원형(原型)과 단군

- 단군신화의 서사(story telling)이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yth of Tangun(檀君) and the Cultural Arche-type of Han(韓)-nation(the Korean race)

저자 (Authors)	민영현 Min Young-Hyun
출처 (Source)	단군학연구 , (17), 2007.12, 221-253 (33 pages) Journal of Dangun Studies , (17), 2007.12, 221-253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단군학회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95954
APA Style	민영현 (2007). 한민족의 문화 원형(原型)과 단군. 단군학연구, (17), 221-25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0 13: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민족의 문화 원형(原型)과 단군

— 단군신화의 서사(story telling)이해를 중심으로 —

민영현*

I. 들어가면서	IV. 한국문화의 성격과 그 의미
II. 단군신화의 구조 및 내용과 한민족의 기원	V. 한국문화사상의 원류로서의 단군사상
III. 전통과 고유, 그 문화사상적 이해	VI. 맺으면서

I. 들어가면서

현대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실하고 오직 편리함과 자기성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양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 속에서 개인과 전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 내지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아상실과 정체확인 실패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근대적 개인으로 재탄생한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 부산대학교 강사, 철학박사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유’는 이미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가치관은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서구적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적 정신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한국적 문화정신과의 화해에는 실패하고, 이도 저도 아닌 과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사회가 분화·발전·복잡·다양화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련의 정신적 아노미 현상은 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21세기 한국사회는 소위 세계화, 즉 Globalization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가운 하나의 소식이 있다. 그것은 ‘한류(韓流)’라고 부르는 일련의 문화적 트렌드가 세계인들의 시선을 붙잡으면서, 개념적으로도 자신의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굳이 애국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한류’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성은 나름대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도 많은 한국의 예체능인들과 연예인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세계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한국적 위상을 드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중에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새롭게 ‘혐(嫌) 한류(韓流)’라는 현상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반의 현상들은 21세기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전쟁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무력과 정치·군사력을 앞세운 20세기 초엽의 힘의 확장파와 다르게, 21세기적인 국제관계는 경제와 삶의 질 그리고 문화적 우위를 앞세운 지도국가 이념, 곧 문화지배력이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문화의 영역에서 곧잘 거론되는 전승과 창달의 문제, 즉 문화적 ‘법고창신(法古創新)’이자, 지식의 ‘온고지신(溫故知新)’에 해당하는 과제

는 오늘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곧 현대 한국사회 역시 전통문화의 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문화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 이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상위의 문화와 하위의 문화가 지니는 기본 특질을 확인하고, 오늘 한국사회의 문화와 지식의 현재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한국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살펴보면서 그 긍정적 문화 요소와 부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고 미래학적 과제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문화 창달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적 소명의 시대적 과제 앞에서, 본 고(稿)는 한국전통 문화와 자생적 고유문화의 중심축에 신시(神市)와 아사달, 즉 한웅(桓雄)과 단군(檀君)의 이야기가 있음에 주목해본다. 이는 왜냐하면 신화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한 이야기, 즉 신화적 서사 가운데에서, 슬한 한국적 문화원형의 잔재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hi-story)를 찾을 수 있고, 또 한민족과 한국인을 길러내던 그녀의 이야기(her-story)를 동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신화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서사적 의미를 이해해 봄으로써, 한국고유문화의 전통 계승을 한 축으로 삼고, 또 다른 축에서는 교감과 조화·생명과 삶의 확장을 꿈꾸었던 한국문화의 현재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눈 앞에 다가온 미래적 과제를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II. 단군신화의 구조 및 내용과 한민족의 기원

대개 철학이란 세계와 인생에 관한 사유로서의 학문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정신적인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인간은 그들 자신이 살아갈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또한 그들 자신의 사회와 함께 살아온 흔적들이 오늘 인류문화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핵심에는 사유하는 지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사유함을 통해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유의 흔적과 삶의 양식, 이 속에서 인간의 문화는 자리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서의 철학이란 용어에 주목해 본다. 굳이 사람이 사는 곳에 생각이 있다는 Eliot의 말을 상기¹⁾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어 나름대로 그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혼돈과 질서의 체계를 파악해 온 한국인 아니 한민족의 精神과 문화는 그 시원적인 출발에서부터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철학과 문화의 실체, 즉 자기모습에 관한 탐색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이에 있어 우선 연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남아 한국인들의 삶과 세계의 이해 및 그 신념과 태도를 형성시켜 온 삶의 의식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측면에서 출발

1) T·S Eliot, *As Seen from Asia*, pp.82~83. “사람이 사는 곳에 생각이 있고, 생각을 동작으로 옮겨 어디서나 문명이 자라날 수 있었다. ... 이것은 무수히 반복된 역사적 사실이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한국문화의 정체를 논함에 있어 한국 상고대, 특히 한민족의 형성 초기와 그 신화적 사유단계에 있어 성립된 자생적이며 그야말로 고유한 한국적 사유의 존재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한민족의 삶과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와 그 인식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사유의 근원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탐색은 다른 의미로 한국문화의 뿌리에 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민족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에 있어 그 문화원형을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신화란 아직은 문자와 언어가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 하나의 옛 이야기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늘의 언어와 이성적 사유로만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신화란 어떤 의미에서도 한민족이 처음으로 경험한 삶과 세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요, 이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단군신화는 신시(神市)의 열림과 맥을 같이하는 한민족 최초의 세계경험이요 이해가 되며, 이는 또 한민족의 동질성을 담보한 최초의 민족적 구심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의 원형(原型)을 찾으려면, 까마득한 옛날, 글도 문자도 없었던 고대의 신화를 먼저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그들 최초의 선조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곧, 그는 본래의 고향 - 이는 대개 하늘 또는 신(神)들의 세계로 묘사되고 있는 터이지만 - 에서 출발하여 어디론가 떠났다, 또는 여기에 자리 잡았다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동시에 대개의 신화들이 그 출발지로

삼고 있는 원주지역 즉 그들 고향의 이야기는 그리 깊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민족이란 개념에 부합될 수 있는 집단과 함께 최초의 선조라 할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다.²⁾

한국 신화의 사유형태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 신화 또한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출발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단군신화는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서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대 그리고 신화적 서사에서 사상이란 하나의 환영처럼 신기루와 같이 설명되는 것이다. 한민족의 출발과 사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삶과 세계에 관한 첫 번째 이해가 신화에는 남겨져 있다. 한국의 신화에서 그 옛날 하늘나라가 있었다는 ‘석유한국(昔有栢國)’의 의미는 마치 잃어버린 고향의 개념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대개의 신화는 그들 민족의 출발과 세계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어떻게 이 삶을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 경우, 신화가 전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일은 후대의 자손들에게 남겨지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신화해석과 그 이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자리한다. 즉, 삶의 의미와 양식 그리고 인생의 의의 등등에 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의 서사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한민족으로 불리는 하나의 족속이 언제 어디에서 그 삶과 사유를 시작하였는가에 관하여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과 지점에 관한 문제는 신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속한다. 신화는 어떤 지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화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

2) “신화가 드러내는 바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신화가 드러내는 바란 인간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과 그 대답들이다(최원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국신화』 2, 서울 : 여름언덕, 2005 표지해설.) 선조와 인간의 뿌리에 대한 이와 같은 신화의 유형을 대개 ‘인간탄생신화’라고 부른다.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는 인간 삶의 출발과 기원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신화 역시 분명한 정도로 한민족의 출발과 기원에 관한 서사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신화해석과 이해에 앞서 한국의 단군신화가 지닌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이는 일면 신화적인 서사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우선 지적해 둔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단군신화가 어떻게 한국문화의 원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신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신화로부터 그 구조주의적인 사상 이해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신화의 사유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파악해볼 수 있다.³⁾

단군신화의 구조(삼국유사)			신화해석과 그 이해	
환인(桓仁) - 부(父)			격절신	천상천(천의천)
↓			홍익인간 ↔ 천부(天符) 삼인	
환웅(桓雄) - 자(子)			현세신	현재천(하늘신)
↓				
풍백, 우사, 운사	태백산 신단수	삼천무리	神市	개천시조
❑ 무(巫)	5사		360여사	재계이화
	호(虎)와 웅(熊)	백일		땅과 동물
	쭈과 마늘	삼칠일	민간의 생명사상	수련과 수양
	선택	↓	인(忍)	수계제불(修禊除祓)
		웅녀(熊女)	인형(人形)	대지모신(大地母神)
呪願有孕, 인간탄생의 이야기	한웅가화(夫化) + 웅녀인화(婦化)		天+地 신(神)+수(獸)	남(男)+여(女)
	↓		천지인(天地人) 합일	
	단군왕검(人), (子)		한민족의 정체, identity	
← 신화와 역사의 분기점 →				

3) 이 표의 단군신화의 구조와 내용은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古朝鮮」의 기록에 근거한다.

원조선의 역사	평양성	조선	배달(풍류)임금	개국시조
	↓			조상신앙
	아사달		선(仙) ☐	소도경전 및 삼한관경의 시대
↓				
기자	장당경	산신(山神)		산악신앙
	아사달	한국 민족문화의 기층		
무속과 민간신앙		풍류도와 국선낭가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신화 속에는 기본적으로 무(巫)와 선(仙)에 관한 관념이 깔려 있다.⁴⁾ 또한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늘, 즉 신(神)에게로 연결되는 신화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을호의 지적처럼 이 같은 신화의 도식 속에서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인간관계의 그림은 나타나지 않는다.⁵⁾ 있다면 오직 신인상화(神人相和)와 화해의 흔적뿐이다. 그러나 신화의 서사가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다만 흥익인간을 위한 ‘살림·살이의 철학’이 그 저변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글쓴이는 일찍이 이를 선사상(仙思想)의 입장에서 추적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철학과 정신문화의 원본(原本)적 특징임을 고찰해 둔 바 있다.⁶⁾ 이로부터 단군사상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단군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기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의 생활사유를 그 근원에서부터 정초하는 존재이다. 이로써 단군은 뿌리가 되어 이후 한민족 문화의 성격을 담지하게 되며, 한국문화사의 도도한 흐름을 출발시킨 새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사상에

4) 이에 대해, 유병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민간신앙 현상에서 巫와 仙은 모든 종교적 행각에 공유하는 원형이 되고 있다. ... 무와 선은 아주 일찍부터 혼효해 있었던 것(柳炳德 編著, 『圓佛敎思想의 展開』(上), 서울 : 교문사, 1990, 92~93쪽).”

5) 이을호, 『한思想의 苗脈』, 서울 : 사사연, 1986, 76~87쪽 참조.

6) 拙稿, 『한국 仙思想의 존재 양상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관한 역사적 논의는 자생적인 고유사상과 외래사상과의 상호교류 그리고 전통사상으로의 이행이라는 다양한 문화적 과제와 함께 현실 역사와 맞물리는 이해와 그 논리적 귀결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자생적 사상이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해보기로 하자.

Ⅲ. 전통과 고유, 그 문화사상적 이해

문화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단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심각한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사상 내지 고유사상이란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역사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송항용(宋恒龍)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것이란 다름 아닌 이해되어진 것일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 이해되어진 것이 우리의 것의 내용이 되는 것”⁷⁾이라 한 지적과, 이에 따른 한국 고유사상에 대한 개념이해의 측면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즉 아무리 자생적 고유사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현재 우리에게 이해된 것이어야 하며, 만일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무의미한 관념적 추상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상대(上代)의 신화적 사유와 함께하는 고대사상과 풍류도 또한 단지 고유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일정한 이해가 오늘의 우리, 즉 한국인들에게 가능해야만 한다. 곧, 단군의 사상과 문화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7) 宋恒龍, 『東洋哲學의 問題들』, 서울 : 여강출판사, 1987, 413~415쪽 ; 여기서 固有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固有라는 말과 우리의 것이라는 말과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 때문에 韓國思想 또한 우리에게 이해되어진 것이면 어느 것 하나 韓國思想 아닌 것이 없다(413쪽).”

이해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한국 전통문화사상으로서의 자기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비록 신화적 사유라 할지라도 이의 정신과 관념이 오늘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한 시대에 국한된 상황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의 전승과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단군과 신화적 사회의 의미가 제대로 읽혀진다면, 이는 적어도 단절된 의식 또는 자기지속성을 갖지 못한 문화정신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경우, 현재 이해되고 있음이란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일정하게 지배하고 이끄는 사유로서 작용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용함으로부터, 고유사상과 문화는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 되며, 이는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끄는 자기내적(自己內的)인 사상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자생적 고유사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변형 없이 그 자체로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전승 보존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곧 한민족의 전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신화는 각각의 시대와 상황마다 새롭게 이해되어 왔다고 하겠으며,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다시금 재분석 재 파악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변형 계승되어져 있는 것이다.

즉 고대의 신화적 사유가 생성된 이후, 이를 한민족이 생활 관념화함에 있어 고대 사유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면서 남게 된다. 따라서 오늘 이를 확인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한민족이 그 역사적 부침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문화를 지켜내는 데 일정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한국사회와 그 문화사상의 현실이 역사적으로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말없이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한민족 문화사상의 근본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민족문화사상의 뿌리와 세계 이해의 진실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문화는 결국 살아남기 위한 도전과 응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투쟁과 화해의 과정이었음을 생각해본다. 이를 통해 문화는 형성된다. 곧 생존을 향한 가열 찬 투쟁의 흔적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문화인 것이다.⁸⁾ 개인의 경우, 이는 life style, 즉 생활양식 내지 습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사회라면 이것은 society culture, 즉 관습(custom)과 문화로 전승시키게 된다. 그 속에 지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전 역량을 지적 유산의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지식은 단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생을 기다리는 원초적 생존력의 형태로 남겨진다.

이것은 집단 속에서 무의식적 정신 에너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일러 Jung은 ‘사고의 원본(原本)’, 즉 정신의 ‘Arche-type’로 파악한 바 있다.⁹⁾ 곧,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전승 유지 창발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살이’해나가고, 민족은 스스로의 경험을 사회적 관습과 문화로 형성시킴으로써 민족적 삶을 ‘살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장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문화의 기반에 자리한 얇, 즉 문화사상의 깊이와 넓이에 관계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현명한 개인은 장수할 것이요, 올바른 문화사상은 민족의 삶을 만세토록 보

8) 김지하는 문화란 결국 생명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밤상공동체’(『밥』, 서울 : 숲, 1998, 91쪽)란 재미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곧,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다.

9)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시각적인 형태를 갖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것들은 판에 박힌 typical 형태를 갖는 습관이 있다. 이것이 내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그것들을 원형 archetype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파드마삼바바/류시화, 『티벳 死者의 書』, 서울 : 정신세계사, 2004, 173쪽 ; 우나 살루스 해설 中).”

존케 할 것이다.

오늘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은 서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쟁과 개인주의 그리고 보편논리로서의 이성주의를 몸 속 깊이 각인해나가고 있다. 되찾은 나라에 대한 보상심리로써, 살아남기 위한 온갖 종류의 학문과 지적 작업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천만년 대계로서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남들이 타국에서 ‘그렇다’라고 하니, 그냥 그런 줄로 아는 것이다. 단군과 그 문화사상이 딱 그러하다. 남들이 신화요, 비학문적이요 또 의미 없는 것이라 하니, 저도 덩달아 그런 줄로 아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할 것이 있다. 적어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단군과 그 문화사상이 아니다. 썩어버린 유학과 남들과 조화할 줄 몰랐던 완고한 봉건성이 이씨 조선의 저녁과 함께 하였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권력자들의 개인주의가 대한제국의 몰락을 앞당겼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 해방의 현실을 가져온 것은 오직 순국선열과 단군 이래의 민족주의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주의가 조국을 되찾아 온 것도 아니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비록 원폭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 스스로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제가 제 정신, 즉 대한의 얼과 혼을 아직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배달임금 단군과 열성조의 보우하심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 일이겠는가. ‘선사귀신(善事鬼神)’¹⁰⁾이라, 예로부터 윗대의 어른들을 잘 모시고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스스로 잘 지키는 한민족이라 한 것은 이미 저 중국의 옛 기록들이 증언하는 바의

10) 『後漢書』, 『東夷傳』 高句麗 ; 『三國志』, 『東夷傳』.

것이다. 그와 같이 오직 하늘을 믿고 자기의 정신을 지켜온 민족의 선조들이 이 땅, 회복의 대업을 이은 것이다.

지금도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네, 북녘의 체제를 지켰네 하고 있지만, 좌도 우도 아닌 민족주의자들이 오직 이 대한민국을 식민(植民)에서 회생시켰을 따름이다. 그런 선배들이 해방 후 정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한국 현대사가 잘 증언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활습관이자 지식이 되고, 민족의 만세를 지키는 것은 사회적 관습과 그 문화일 수밖에 없다. 혹자는 민족문화의 세계를 마치 돈벌이하는 수단으로만 오해하여 온갖 언설을 다 고(告)하고, 또 혹자는 민족이야기만 나오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식으로 매도하곤 하지만, 그 역시 한민족문화와 단군사상의 함의를 알지 못한 소치에 다름 아닐 뿐이다.

한민족문화와 함께 했던 문화의식의 핵심에는 ‘살림살이의 생활의식’이 있었고, 그 내면에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재세이화의 방식 그리고 접화군생(接化群生)의 문화’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결국 공동체의 삶과 의식이란 특이한 한국적 성격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¹¹⁾ 하지만 표층의 기득권과 야합하지 못했던 한민족문화정신의 핵심은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고, 오직 민중 속으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단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기층의 문화세계를 들여다보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자생적 고유사상과 전통사상의 문제를 파악할 때, 대략 세 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첫째는 삼국통일 이전 삼국정립의 단계에 이미 유입되어진 유·불·도 사상이 초기부터 한국화하고, 이후 표층 정신문화의 상당부분을 담당함으로써 현재까지 연결 이해되고 있는 측면에서, 한

11) 임근택, 『한사상과 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35~37쪽.

국적 유·불·도의 사상형을 그대로 한국 전통사상 내지 전통철학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이러한 외래사상적인 흐름에 반대하고 자생적 전통으로서의 고유라는 의미에 집중하여 국조신화의 사유형에 나타난 사상성이 전통사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대개 민족사상적 이해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와 외래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한국문화사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유체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통째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실증성을 주로 한 강단학계에서는 대체로 첫 번째 경향, 그리고 일부 민족종교를 중심한 소위 재야학계에서는 두 번째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²⁾ 그러나 이 둘은 어차피 일정한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양자의 입장을 지양하고, 세 번째의 절충적이고도 종합적인 입장을 택하여 한국의 전통사상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실로 다양성의 종합으로 이해함이 가장 적절하겠기에 그리한 것이다. 이는 실로 풍류도(風流道)나 고신도(古神道)로부터 한국의 전통문화가 터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대적·자생적 고유사상과 외래적 삼교사상과의 상화(相和)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이 쌍방 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파악함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곧 고유사상이 삼교사상을 흡수 포함함으로써 이후의 한국사상과

12) 이러한 연구경향의 불일치로 인해 韓國傳統思想의 연구는 사실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겨지는데, 이 점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韓國思想界의 긴급한 懸案이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의 개척이야말로, 이의 연구에 있어서 참으로 필수적인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가원 외, 『韓國學研究入門』, 서울 : 지식산업사, 1988, 236~238쪽 참조).

문화가 전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요, 또 외래적인 삼교사상이 고유 사상적인 정신요소들을 모조리 구축함을 통하여 한국사상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고유(固有)와 외래(外來)의 양자는 공히 한국정신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사상세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실질적인 한국의 정신·사유·사상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으로부터 파생된 사유의식의 현대적 이해를 통해 한국문화의 기본 성격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핀 것과 같이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전통사상(傳統思想)이라 할 때, 이것이 현재의 한국인 또는 현대사회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상과 문화가 갖는 가치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이곳의 삶과 세계를 떠난 전통사상을 위한 전통사상의 존재는 무의미하며, 동시에 전통사상과 유리된 삶과 세계 또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그 근본과 주체성을 상실한 즉물적(即物的)이며 맹목적(盲目的)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래사상과의 만남 이후 전개된 한국사상사에서 단군의 의미를 확인하는 일 또한 한국 아니 한민족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한국문화사를 살펴볼 때 단군 이래의 사상과 문화는 그 특유의 생활사고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명확한 사상체계나 기록으로 남겨지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텍스트, 아니 역사적 사료를 통해 단군을 만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민족사 즉, 한민족의 문화사라는 콘텍스트 즉 맥락 속에서 만나고자 하면, 단군사상이나 풍류도가 지닌 조화와 종합의 사유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는 데 곤란함을 안겨주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나말 이후 한국의 고유사상은 외래의 문화사상과의 만남 속에 그 화해와 종합의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전통사상으로 변화한 외래적 사상체계 내(內)의 ‘숨겨진 자기의식’으로 남겨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³⁾ 그리고 대개 단군과 자생적 고유사상의 형성과 전개는 민간 기층에서 생활문화의 형태로 전승되어 내려오게 되니, 이는 무신교적인 고신교(古神敎)의 무속과 도교사상적인 국선낭가의 전통을 지닌 선도(仙道)의 형태로써 자기의 외형과 내용을 구성해 왔다. 앞서의 표에서 기록한 무(巫)와 선(仙)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의 명확한 내용과 의미는 공인된 기록의 형태로 남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사상의 편린을 찾아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은 지극히 난해한 일에 속한다 하겠다.

사실 무속의 민간 신앙적 요소는 지금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¹⁴⁾ 이런 측면에서 단군의 사상은 결코 죽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신선낭가에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낭가의 전통은 왕권의 강화와 함께 어느 한 순간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러다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와 사서(史書)의 여기저기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언급을 통해 바늘 끝 만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겨우 짐작케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단재의 신선낭가에 관한 언급에서 그 힘을 얻는다 해도, 이를 후대에 제대로 전해주기에는 참으로 지난한 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구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하더라도, 약간의 언급이나마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군이래의 한국 신선낭가¹⁵⁾

13) 김익수 외, 『韓國人의 倫理思想』, 서울 : 을곡사상연구원, 1992, 508쪽.

拙著, 『仙과 魂』, 부산 : 세종출판사, 1998, 제3부 1장 참조.

14)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巫敎』, 서울 : 서광사, 1997.

15) 글쓴이는 이와 관련하여, ‘선사상(仙思想)’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신선낭가’

는 도가와 도교라는 외래사조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도교의 신선도 내지 금단도와 상당한 정도의 상호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부터 학계에서는 이를 한국도교의 역사적 전개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¹⁶⁾ 하지만 이는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실로 한국의 신선낭가는 중국의 도교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수행과 수련의 실천 및 이론 성립의 시기를 보내었기 때문이다.¹⁷⁾

신선낭가, 즉 선사상(仙思想)과 한국도교사상은 비록 그 습합의 양상 속에서 유사한 사유세계를 함께 보유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개념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른 구분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흡사하면서도 서로 다름’의 사상, 그것이 한국에서의 선(仙)과 도교(道敎)이다. 따라서 이제 선사상(仙思想)과 한국도교를 논함에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상이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곧 선(仙)을 비록 한국도교사상의 한 갈래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도교의 한국적 전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의 공동체적인 인간관이고, 고대적 신(神)의 의식이며, 비록 도교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적 심성수련의 내단(內丹)학이며 또한 한국인의 자기의식, 즉 정체성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신교(古神敎)는 중국도교의 종교적 형식과 만

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후 ‘선사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여기 ‘신선낭가’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16) 차주환,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출판부, 1986 참조.

17) 『揆園史話』에 담겨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참고에 대신한다. 「檀君紀」, “於是海上六鰲 荒怪之說 繼出於閑人之革 乃我國之士 更效嘆於此曰 … 則此 又返咀 漢土之餘唾也” ; 곧 이와 같은 언급은 中國方士들의 황탄함과 허무맹랑한 것이 전통적인 한국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기야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전통적인 韓國仙의 가르침이 中國道敎化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道敎思想의 추이에 있어서, 그만큼 중국의 그것과 한국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미 朝鮮의 道敎學者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反證이지 않겠는가 한다.

나 그 외형적인 자기변화를 거치면서 이후 민족종교적인 사유를 잉태하고, 한국의 고선도(古仙道)는 자체적인 한국고대사유의 풍류적인 사상세계와 만나면서 국선도와 조선(朝鮮) 단학(丹學)의 역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본다. 그러면 이러한 선(仙)과 단군의 사상 그리고 그 문화의 현재적 의의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IV. 한국문화의 성격과 그 의미

최근 서점에는 한국문화와 관계된 많은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열에 여덟·아홉은 대략 문화기행이라 하여 관광안내책자로서의 기능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예술 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의해 최초로 시도된 일련의 문화유산답사라는 기행문적 보고가 대중의 전폭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야기된 한 행태인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슴 가득히 답답한 그 무엇을 지워내기 힘든 것을 느낀다.

아마도 그것은 지금 한국의 문화이해와 해석에 있어, 여기에는 표층의 관찰만이 있을 뿐 기층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반쪽의 문화로서만 남겨져 있다는 미진하고도 찻찻한 그 어떤 기분과 답답함을 지워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문화기행의 보고서에는 외형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주석은 있으나, 그 내면적 정신 즉 한국적 문화의 내용 이

해를 통한 중심에서의 인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그 넓이는 있으나 깊이가 없는데서 오는 허전함과 상실감이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더 몸살 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 그러나 그 우수성과 탁월성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 말하는 책들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 문화의 이해에 현상만 있을 뿐 내용, 즉 본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작 말하고 있는 것들이 불교의 영향이니, 조선 사림(士林)의 절의의 표상이니, 미술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느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불교의 문화는 결국 유입된 그리고 도래한 문화정신이라는 근본성격을 지닐 뿐이다. 이로부터 한국문화의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일반관념은 다만 이해의 한계만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하자면, 한국문화는 그대로 민족문화의 성격을 지닌다. 땅의 문화나 외래적 종교의 문화로 이해하기 힘든 많은 부분을 한국문화는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문화로서의 한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면, 민족의 출발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그 무엇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한 타방의 문화와 한국문화는 그 기초적인 이해에서부터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우월과 같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민족문화라 하여, 이것이 단순히 민족적 특수성에 입각한 변방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늘 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근대적 민족이란 개념에 대해, 한국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민족이란 개념마저도 그 이해의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 일단 지적해둔다.¹⁸⁾

곧 한국문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인간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다시 말해 한민족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개 한국 민족문화와 민간문화의 영역을 말할라 치면, 이견 그대로 무속이나 미신이 되기 쉬운 딱 그 정도의 이해와 겉포장으로 머물고 만다. 더욱이 민족문화라고 하는 측면은 일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소비니즘적인 맹목적 애국이란 평가와 비판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문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비를 벗어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는 정확히 수준 낮은 저급의 문화로 취급되기 십상이다.

소리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민화와 건축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다. 한마디로 말해 문화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철학과 문화, 사상과 현실의 상호관련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한국인의 자생적 문화사상세계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언제나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한국문화사상과 단군의 세계에 관해 두서없이 말해 보고자 한다.

한국문화는 기본적으로 민족문화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특성을 지닌 한국문화는 민족의 출발과 그 기원을 함께한다. 그리고 민족출발의 이야기는 국조단군의 신화 속에 신화적 언어로 남겨져 있다.

여기서 신화는 말한다. 한민족 최초의 철학적 사상성으로서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신화적 서사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민족 문화의 자생적 근거로 작용하며, 또한 한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민족문화의 자기모습과 그 철학에 대해, 일찍이 孤雲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國有玄妙之道 曰 風流)’¹⁹⁾라 하였다.

18) 拙著, 『仙 생명 조화』, 서울 : 모시는 사람들, 2006, 249~252쪽.

1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곧 한국문화의 사상적 모티브와 근원성은 자생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는 민족의 고유성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래적 요인으로서의 불교와 유교는 다만 이러한 자생적 민족문화의 허용범위 내에서 말해져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한국문화의 유교적·불교적 특성은 그것이 한국역사 즉 민족사의 기술과 생활환경 속에서 다만 표층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온전히 한민족 전체의 민족 문화적 성격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

역사 기록시기의 2천년과 +@로 규정된 한반도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입된 유교와 불교는, 그 삼천년도 더 전에 이미 자생하였고 토착되어 스스로의 문화를 규정해 온 한민족문화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난 문화적 접변과 교류의 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접변과 교류, 이로부터 외래의 문화는 이미 진행되어 왔던 한민족 기층의 문화의 식과 만나고, 이후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전통문화적인 자기 역할을 허용 받게 된다. 그러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낸다”고, 한국의 전통문화는 한국문화사의 잘못된 이해를 통해 이제 기층의 문화의식과는 다소 아니 상당히 다른 형태로 유교의 조선, 불교의 고려로 변질하고 만다.

이미 서구에 알려진 한국문화의 대부분의 이해는 유교와 불교로서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로 현재 이해되고 있는 儒·佛은 결코 한국문화의 전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반도 안의, 역사기록시기 내에서, 그리고 표층적 기득권층의 비호 아래 나름의 영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국문화의 일부로서 기능했을 뿐이다. 반면 보다 더 많은 민족의 기층을 이루고 진정한 한국문화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해 온 것은, 자생적 민족정신의 사유세계 속에서 반만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민간의 순수사유요, 그 생활의 관념이라 할 한민족 살림살이의 문화를 만들어 온 ‘그 무엇’인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는 한복을 지어 입은 백의민족의 마음이며, 온 돌과 김치, 두레와 향약 및 계와 혈연·지연의 연(緣)과 같은 관계의 법칙을 발견했던 한민족 근원의 정신이며 민간 기층의 생명의식이다. 사실상 ‘삶을 위한 삶’으로써의 의·식·주의 한국적 지혜와 그 정수를 모아 만든 문화사상, 그것이 진정한 한국민족문화의 철학사상이요, 우리네 한 아버지·한 어머니들의 애정 어린 마음이었던 것이다.

다만 이는 풍류도(風流道)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불교의 그것·유교의 그것 그리고 도교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러기에 역사적으로도 그 문화적 다툼이나 권력적 전투를 그리 살벌하게 갖지 아니하고, 다만 그 전체로서 온전히 새로이 들어온 유·불·도와 조화하고 종합하였던 한국의 정신이다. 이것은 오늘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서구의 정신과 사상 및 문화, 곧 기독교의 한국적 전개에 대한 주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조선조 후반 척사위정이나 사문난적의 이교(異敎)와의 문화전쟁은 유교와 기독교의 그것이었지, 한민족 문화 기층의 의식은 아니었다. 충돌은 봉건과 근대의 충돌이요, 권력 기층과 표층의 헤게모니 장악 싸움이었 을 뿐, 민족문화와 외래문화의 싸움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민족 문화의 기층에 깊어 있는 문화정신은 그야말로 홍익인간이요, 재세이화이며 접화군생의 의식일 뿐, 배타와 차별의 문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민족문화사는 언제나 새로운 문화정신과 만나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던 문화적 특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오죽하면 단재마저도,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유교 조선의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조선 불교의 조선이 될 뿐이라”²⁰⁾고 한탄했을 것인가.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한탄할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자생적 문화사상 자체가 지극한 조화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곧 삶을 위한 삶으로서의 문화정신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 한국의 문화정신은 언제나 타와 나의 상호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을 뿐, 이를 차별하고 몰아세우며 배타와 이기으로써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민족문화 달리 한국문화는 그 기층의 정신과 한민족 저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정한 스스로의 문화세계 즉 포용과 관용 종합의 문화세계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거스르고 반역하는 마음을 일체 죽이고, 다만 돌고도는 인생사에 구름 가듯 바람 가듯 그렇게 자연과 벗하는 마음을 그 깊은 문화현실로 남겨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국문화는 어우러짐의 정신이요, 생명의 정신이며, 화해와 종합의 의식 위에 성장해 온 참여와 관조의 정신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폭력과 권력으로 얼룩진 인류사의 명든 인간정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듯 순종하고 순응하던 정신이기에 세계의 변혁과 인문의 발달, 문화 권력의 주도권 쟁탈전에 또한 따르지 못하였던 기억들을 가진 문화정신이기도 하다. 싸워 이기기를 원치 않았기에 은근과 끈기의 문화상징을 가졌고, 군림하지 않았기에 자연 속에 우뚝 서지 못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혹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어리석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승자들과 결과론자들의 시각일 뿐이다. 이러한 나약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이해는 한국의 문화정신이 가진 지극한 인간긍정과 생명 중시의 노래를 듣지 못한 소치에 다름 아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다시금

20) 단재 신채호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언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의 논문 『조선역사상 1천년래 제일 대사건』(『韓國史研究草』, 을유문화사, 1987)의 결론에서는 사대주의의 득세와 그 폐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되는 길은 -근대화 이후 인간 지식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은 이성주의자들과 성급한 변증주의자들이- 인간과 인생의 현실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혼동하며 쌓아온 인간 오만과 모순갈등의 확대를 기도한 악(惡)의 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에서 유래한 것일 뿐이다.

어차피 살다갈 인생, 이길 것도 질 것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사상은 다만 이 모두를 온전한 하나에로 인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자연과 조화하고, 귀신과 대화하며, 불완전한 인간들을 온전한 선(仙)의 경지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던 마음이 그 문화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단군과 관계한 풍류도, 그리고 그 신화와 역사의 흐름은 이같은 한국문화의 자생성과 근원성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그렇기에 실로 역사시대의 모든 이야기와 더불어 단군은 언제나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고 동시에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지닌 큰 흐름에서의 원류, 즉 새암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군과 그 문화의 본질적 성격과 그 사상적 흐름을 찾는 일은 진정한 한국문화의 근원과 지평을 확장하는 지름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V. 한국문화사상의 원류로서의 단군사상

지금까지 살펴 본 단군사상과 그 문화의 성격을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신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관념, 세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삶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법칙들이 신화적 언어로 설명되어 있다.²¹⁾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思想史大系』 1, 성남, 1990, 455쪽. “韓國神話는 수직 축 상에 기호들을 분배·배치함으로써 그 의미론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그 정신성(精神性) 즉 일종의 생활 관념이라 할 하나의 신화적 사상성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신화의 사상성이라 하는 것은 오늘의 철학적 체계 이론처럼 그렇게 명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신화는 오직 상징과 기호로 이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의 온전한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문화적 과업 또는 숙제와 같은 것이 된다. 물론 새로운 문화적 창발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안개 속의 길과 같은 혼돈과 혼란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만일 신화가 오늘의 우리 언어처럼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 놓았다면, 과연 인간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을까. 다만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옛 이야기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은 신화의 사상성을 만약 ‘非體系的 體系’라 한다면, 이는 아마도 도가의 철학이 전하는 비논리의 논리와도 유사한 논증체계로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선(仙)의 사상(思想)에 나타난 철학적 측면의 사유들을 그 대체적인 틀에 맞추어 다시금 재파악해보기로 하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 存在論的 측면 : 天地人의 상호 연관으로부터 나타난 多元論的 一元論의 존재론
⇒ 祖上崇拜의 관념과 큰 하나됨의 의식
 - * 認識論的 측면 : 多即一 一即多의 존재이해, 그리고 人間神格의 靈知說과 人格의 평등성과 동등성을 기조로 한 자기 의식적 하나 됨의 인식론
⇒ 人間尊重의 관념과 仙의 의식
 - * 價值論的 측면 : 弘益·理化의 세계 건설을 향한 현세적 실천적 가치론
⇒ 現世中心의 관념과 이상 사회적 공동체의 의식
- ⇔ 한국인의 의식과 공동체 문화

앞의 도표는 철학 일반에서 말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각각에 단군신화의 각 요소들을 신화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재배치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단군의 사상과 문화는 그 전승과 창달의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각각의 시공간 속에서 통시적이고도 공시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만 개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것에 의지해서 상기와 같은 이해를 여기에 던져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단군의 의미를 문화사상사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시금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곧 오늘 현대의 한국문화사상은 ‘한국정신(韓國精神)의 원형(原形)=한국고대정신(韓國古代精神)=선(仙)의 의식과 문화⇒한국고유 전통사유(韓國固有傳統思惟)=풍류도(風流道)=낭가(郎家)문화⇒선사상(仙思想)⇒한국도교사상(韓國道教思想)과 조선단학⇒민족종교사상(民族宗教思想)⇒현대 한·훈·仙思想⇔한류(韓流)’로 연결되지 않을까 한다.²³⁾

마지막으로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밝혀둔다면, 그것은 ‘단군과 선(仙)의 사상(思想)과 문화’는 그 이해의 증추에 철저한 현실인식을 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바로 공동체의 현실이며, 이로써 한국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써 공동체의 문화를 또한 말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한국적 공동체의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23) 이 점은 韓國精神의 原形이나 현대 한철학의 자기모습과 현재 韓國道教思想 硏究會의 입장에서 韓國道教의 전개형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이해된 것이다(韓國道教思想硏究叢書Ⅱ, 『道教와 韓國文化』,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한국고대사유의 종교적이고도 외형적인 갈래를 나타내 본다면, 韓國古代精神=古代神敎⇔土俗信仰⇒韓國巫俗信仰⇒韓國民族宗教信仰으로 그 전개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례를 2002년 어느 여름날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본 기억이 난다.²⁴⁾

VI. 맺으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신화 속에서 단군과 선(仙)의 사상(思想)과 문화가 가졌던 ‘보다 큰 하나됨’의 사유와 총화, 즉 공동체의 의식과 사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는 비록 유일한 대안은 혹 아닐지라도, 사실상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에 있어 더더욱 필요한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체의 포용성과 원융성의 계기가 자발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개별화·분단화의 상황은 더욱 더 가속화할 것이요, 결국은 철저하게 분별되어진 속에서 나와 네가 우리로 화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회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고 있을 때, 남게 될 것은 결국 탐욕과 쟁탈 그리고 투쟁이라는 일종의 전쟁 상태 뿐일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질획득 내지 먹이획득이라는 경제적 물질적 측면을 앞세운 오늘 개인의 편리와 부귀영화는, 그 대로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몇 가지 정신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다.

24)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의 문화현상이다. 그리고 오늘 국가적인 스포츠 제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행태가 있다. 놀랍고도 기이한 새로운 문화적 참여의 성격에 대해 술한 언론과 방송들이 일종의 증후군 즉 신드롬으로 불렀으나, 이 속에는 분명한 한국적 문화 코드의 핵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拙稿, 『붉은 응원단과 공동체 문화』, 『대동철학』 제19집, 대동철학회, 1~28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문화현상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학계의 문화적 관심을 통해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바로 이 점에 있어 한국문화의 원형은 분명한 시각을 던져준다. 곧 인즉선(人則仙)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욕망과 물질적 수급을 통한 존재확인이란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선적(仙的)인 삶에 있어 오히려 어리석은 것 아니 무가치한 것으로 한국전통의 윤리관에서는 심지어 이를 죄악시하기도 하였다. 오직 공동체 전체를 향한 열린 홍익의 사유만이 한국문화의 본질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문화 원형에서의 홍익인간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오늘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말할 때, 한국문화가 하나의 전체주의(全體主義)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기에 명확히 해야만 한다. 곧 전체주의가 하나의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의 사유형태를 띄는 것이라면, 단군과 선(仙)의 홍익인간적인 공동체의식은 그러한 배타성의 기초 위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원형은 언제나 총체적 전일성(全一性), 즉 ‘나와 네가 만나 우리로서의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곧 나와 남의 둘이 결코 둘이 아닌 우리라는 하나의 의식으로, 그 사유의 근본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떤 시·공간적인 구분에 기초한 단순한 민족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인간인식과 인류 사해동포의 보편적 기초를 언제나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선사상은 결코 배타적 사상·교조적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곧 물질세계나 현상의 가치보다는 현실의 삶과 인간이해의 깊숙한 근원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사상은 언제나 자기의 세계이해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때로 국난의 경우에는 결집된 민족의 응집력으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공동체의 축제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민족사상으로서의 자기성격에 의한 것일 뿐, 결코 침략적·배타적 의도를 지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한국문화사와 사상사에 그 족적을 뚜렷이 남기고 있는 것은, 이론으로서의 세계인식 내지 삶의 구조적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원초적인 인간심성의 작용과 표상으로 등장하며, 역사적으로는 낭가정신(郞家精神)이나 선비정신 등으로 나타난 바, 이는 모름지기 실천으로서의 재세이화(在世理化)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 그리고 그 현현이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는 인간심성과 그 수양의 단계로서 인격의 척도를 가늠한 한민족의 生活意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한국의 정신과 문화로 출발하는 공동체의 자기회복 문제는, 주체의 상실과 철학의 부재에 빠져 있는 오늘 한국의 정신계에 있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학계의 맹성을 촉구해본다.

※ 주제어 : 단군, 한국문화, 문화원형, 공동체, 선(仙)

〈참고문헌〉

- 『揆園史話』,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後漢書』.
- 김익수 외, 『韓國人の 倫理思想』, 서울 : 을곡사상연구원, 1992.
- 김지하, 『밥』, 서울 : 솔, 1998.
- 閔泳炫, 『붉은 응원단과 공동체 문화』, 『대동철학』 제19집, 대동철학회.
- 閔泳炫, 『仙 생명 조화』, 서울 : 모시는 사람들, 2006.
- 閔泳炫, 『仙과 혼』, 부산 : 세종출판사, 1998.
- 閔泳炫, 『한국 仙思想의 존재 양상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 宋恒龍, 『東洋哲學의 問題들』, 서울 : 여강출판사, 1987.
- 신채호, 『韓國史研究草』, 을유문화사, 1987.
- 柳炳德 編著, 『圓佛敎思想의 展開』(上), 서울 : 교문사, 1990.
- 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서울 : 동방학술연구, 1988.
- 이가원 외, 『韓國學研究入門』, 서울 : 지식산업사, 1988.
- 이을호, 『한思想의 苗脈』, 서울 : 사사연, 1986.
- 임균택, 『한사상과 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巫敎』, 서울 : 서광사, 1997.
- 차주환,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출판부, 1986.
- 최원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국신화』 2, 서울 : 여름언덕, 2005.
- 파드마삼바바/류시화, 『티벳 死者의 書』, 서울 : 정신세계사, 2004.
- 韓國道敎思想研究會, 『道敎와 韓國文化』韓國道敎思想研究叢書Ⅱ,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8.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思想史大系』 1·2, 성남,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Myth of Tangun(檀君) and the Cultural Arche-type of Han(韓)-nation(the Korean race)

Min, Young-Hyun

The Rhanlang-biseo described the Fungryu-do. It is the ancient Korean thought and the traditional system of culture with originality. It was represented to include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oriental three thoughts together. It is a principle which made the various heterogeneity into the One of homogeneity. Sun means the original Korean philosophy and at the same time an outlook on human beings. Shin, Chaeho said the Sun-bi and Sun-In.

The short history of Sun is as follows. Long ago, there was a man in Korea. His name was Tankun Wangkeom. He defined himself as a Sun. So Sun was a concept of self-definition. From this the thoughts of Sun were started. As a result, it created a philosophical system of Koreans' outlook on man and the world. We call it the Kooksun or Sundo. In the Korean academic world, it is called Ko-Shinkyoo or Ko-Sundo.

The Korean Sun is not merely immortal, but to live with immortality. He is the living man, same as me. But he is free. He has no taboo, but he can control self-limits. And then he becomes One with the Cosmos. Sun can be understood as a series of the holon or hologram in Korea.

The Tangun myth has been telling the culture of Sun. It tells the world of Korean Shaman also. From this, it has been become a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The special character of Korean culture is based on the thoughts of great one and 'woori'. So I think that the cultural philosophy of Korea is the thoughts for the community. And I think that this thoughts are succeed as a archetype of Korean culture.

※ Key words : Tangun, Sun, Korean, culture, archetype